

# Japan Weekly Digest

2012. 11. 10 ~ 2012. 11. 16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중의원 해산과 총선 쟁점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일본경제, 경기후퇴하의 마이너스 성장
- 히타치그룹, 금속과 전선 간의 합병으로 구조개혁 마무리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**한일경제협회**  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 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 
(Tel.02-3014-9888)

## ① 주간경제초점 : 중의원 해산과 총선 쟁점

### □ 12월 16일 총선

- 일본 집권 민주당과 정부가 다음달 4일 조기총선을 공고하고 16일 투표하기로 일정을 발표
- 노다 총리가 중의원해산 조건으로 내건 적자국채발행법안, 중의원 의원정수 삭감 관련 법안 등의 국회통과를 자민당 등 야당이 수락함에 따라 이달 16일 중의원해산, 12월 16일 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
- 다음달 총선이 실시되면 2009년 총선에서 54년 만에 정권을 내준 자민당은 3년 만에 정권을 되찾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
- 각종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자민당은 25%내외를 보여 민주당의 2배를 넘고 있음

### □ 배경

- 노다 총리는 자신의 생명을 건 소비세인상안을 야당의 협조로 국회에서 통과 시키면서 가까운 시일 내 조기총선을 실시하겠다고 약속
- 그 후 부족한 예산을 국채로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적자국채발행법안(특별 공채법안)국회통과, 중의원선거제도 개혁법안 국회통과, 사회보장국민회의 설치 해산의 3대 조건으로 제시한바 있음
- 중의원 조기해산에는 또한 노다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
- 동아일보에 의하면, 일본정부는 12월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, 총선결과 예상대로 자민당 정권이 들어서면 예산편성권도 넘어가게 됨. 국가부채가 GDP의 2배가 넘는 상황에서 자민당이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벌이지 못하는 경우 국민들의 실망을 살 수 있음
- 그렇게 되는 경우 참의원의 절반을 교체하는 내년 7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부활할 수 있다는 계산임
- 또한 소비세인상을 위해서도 금년 중 총선이 불가피함. 2014년 4월 1차적으로 현행 5%인 소비세율을 8%로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, 내년 가을 경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한다는 경기단서 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임
- 즉, 자민당이 발목을 잡으면 소비세 인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

## □ 경제문제 관련, 총선의 예상 쟁점

- 일본의 총리는 중의원 해산이라는 카드를 통해 선거의제를 선점해 왔음
- 중의원 해산과 16일로 예정된 중의원선거에서는 지난 3년간의 민주당정권, 소비세 인상, 적자국채발행, 경제재생·성장전략, 에너지정책,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 등이 쟁점이 되었거나 될 전망
  - 일본 언론매체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, 금년 8월 성립된 소비세 인상 법안에 대하여 최소한 55%이상의 일본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적자국채발행에 대해서는 적자국채 법안이 통과하는 경우, 노다 총리가 현재 경기침체 하에서 필요성을 역설한 경제대책의 재원을 무리 없이 조달가능
  - 건설국채와는 달리 적자국채는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1년 시한의 특례공채법에 의해 발행이 인정되고 있음
  - TPP에 대해서는 찬성이 46%로 반대 28%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농업계는 물론, 민주당내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음
  - 일본 언론들은 노다 총리가 TPP 참여를 쟁점으로 내걸어 선거전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
  - 노다 총리의 원전제로정책에 대해서는 자민당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원전제로에 반대
  - 노다 내각이 금년 7월 31일 각의 결정한 일본재생전략에 대해서는 개별 시책을 나열하는데 일관하고 있고 정작 필요한 일본정부의 대응에 핵심이 빠져있다는 비판

## 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### □ 일본경제, 경기후퇴하의 마이너스 성장

#### ○ 정부의 경기회복 시나리오에 차질

- 일본정부는 여름 이후 해외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경기의 전인차역할이 내수에서 외수로 전환되는 이른바, 「버튼터치형」 회복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었음

- 그러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감속으로 수출이 부진하고, 이에 따른 설비투자 보류 등으로 내수, 외수 모두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당초 시나리오가 뒤틀리게 됨

#### ○ 3/4분기 실질 GDP 연율로 3.5% 감소

- 일본 내각부가 12일 발표한 2012년 3/4분기 실질GDP는 전기비 ▲0.9% 연율로는 ▲3.5%의 증가율을 기록. 마이너스성장은 3분기 만에 처음

- 마이너스성장의 주된 원인은 수출부진,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를 지탱해준 내수 부진도 각각 성장률을 0.7%포인트 및 0.2%포인트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, 작년 1/4분기 이후 처음으로 내수, 외수 모두 마이너스

- 실질성장율의 주요 항목별로 보면, 개인소비가 0.5%감소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, 2011년 1/4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임

- 자동차판매에 촉매 역할을 해온 에코카보조금이 9월 21일부로 종료함에 따라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감소

- 전기가스 등의 광열비를 포함한 비내구소비재도 절전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연속 감소

- 기업의 설비투자는 불투명한 경기전망으로 3.2% 감소, 2분기 만에 마이너스

- 수출은 5%감소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. 미국·유럽, 아시아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이 모두 감소

- 수입도 0.3%감소로 5분기 만에 마이너스. 원유 및 천연가스의 수입이 줄었는데 국내생산의 부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

- 부흥수요만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투자는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4% 증가로 3분기 연속 플러스

- 정부지출도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의료비나 간병비 등의 증가로 0.3% 증가, 10분기 연속 증가. 이들 공공수요의 증가로 GDP성장률이 0.35%포인트 상승
- 4/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 예상
  -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은 4/4분기에도 마이너스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임
  - 부흥수요로 공공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나, 에코가보조금 중단에 따른 자동차 판매의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일·중 관계 악화에 따른 대중 수출타격도 본격화될 공산이 큼
  - 내년 1/4분기 이후부터나 세계경제회복으로 일본경제도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많으나, 일·중 마찰이 장기화되는 경우 대중수출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
- 일본정부는 이달말 경제대책 2탄을 발표할 방침

## □ 히타치그룹, 금속과 전선의 합병으로 구조개혁 마무리

- 히타치제작소의 자회사 히타치금속과 히타치전선이 2013년 4월 1일부로 합병하기로 정식발표. 존속회사는 히타치금속으로 신규회사의 사명은 「히타치머터리얼즈」
- 히타치제작소는 이들 양사에 50%이상 출자하고 있음. 2012년 3월 결산기 매출액은 히타치금속이 5,560억엔, 히타치전선이 4,325억엔 합쳐 1조엔 규모임
- 이번 합병은 히타치그룹의 현안의 하나인 히타치전선의 경영재건을 위한 근본적인 수술로서, 현 CEO가 추진해온 구조개혁이 마무리 단계
- 히타치는 10년 전부터 구조조정을 추진, 최악의 적자를 낸 2009년부터 그룹내 중복부문과 비채산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구조개혁을 본격화함
- 「종합전기」의 깃발을 내리고 중전기나 철도 등 사회인프라사업과 강점을 가진 IT사업에 집중
- 2010년 봄까지 히타치테크놀로지나 히타치마크셀 등 상장자회사 5개사를 TOB(주식공개 매입)방식으로 완전자회사하는 한편, IT와 사회인프라에 경영자원을 집중시킨 결과, 경영상태가 개선

- 히타치금속과 히타치전선은 히타치그룹의 주요 5개 부문의 하나인 고기능재료의 핵심기업임
  - 히타치 전체 매출액의 14%를 점하는 동 부문은 전선의 수익력이 저조한 가운데서도 5%의 영업이익율을 기록. 금속·전선의 합병으로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히타치그룹의 고수익부문이 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
  - 히타치금속은 하이브리드자동차나 전기자동차의 구동용 모터에 사용하는 고성능자석 분야에서 세계시장점유율 약 40%를 확보. 산업인프라나 자동차, 전기용 고급금속재료에도 강함
  - 한편 히타치전선은 전력회사공급용 전선이 주력사업으로 과거에는 그룹발전의 기초를 쌓았음. 그러나 전선은 국내수요가 한계에 이른데다, 반도체용 전자재료의 부진 등으로 경영이 악화
  - 그러나 철도망이나 송전망 등 신흥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인프라에 필요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음. 해외에 생산·판매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히타치금속과 합병함으로써 주요제품의 매출액을 늘린다는 것임
- 히타치금속과 히타치전선이 합병방침을 굳힌 것은 그룹 전체로 세계시장을 개척한다는 히타치제작소의 전략을 반영한 것이며, 앞으로 히타치그룹은 해외인프라 수요 개척에 경영의 역점을 둘 방침임

### 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스미토모상사	2012.11.12	해수담수화	오만	수주/해수담수화플랜트, 수주규모 약 300억엔
동양엔진	2012.11.13	인프라정비	이라크/이라크 정부	개발협력/이라크부흥계획 참여
닛토우전공	2012.11.13	핵산의약품	미국/기린다스 아메리카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가액 10억엔
미쓰이해양	2012.11.13	양상자원설비	브라질/포르토 브라스	수주/수주가액 1,000억엔 이상
닛 싱 식 품 / 아 지노모토	2012.11.13	즉석면	브라질	직접투자/생산능력증강, 투자규모 약 18억엔
히타치제작소 /미쓰비시상 사/토시바	2012.11.14	인프라정비	인도/인도정부	개발협력/ 총투자규모 1조 2천억엔
세키스이화학	2012.11.14	자동차용부 자재	인도네시아/현 지 플라스틱 부 자재메이커	자본제휴/합작기업설립, 출자비율 51%
이온	2012.11.15	의류	미얀마	생산제휴/위탁생산
JCB	2012.11.15	금융	라오스/봉사반 뱅크	업무제휴/ 현지에서 신용카드 발행
키린홀딩스	2012.11.16	음료·부동산	싱가포르/F&N	직접투자/ F&N의 음료사업만 매수
쿠보타	2012.11.16	바이오가스 발전사업	말레이시아, 인 도네시아/현지 팜오일생산회사	자본제휴/합작기업 설립, 플랜트 제조 및 매진
미쓰이물산, 동경가스	2012.11.16	열 전 병 급 (cogeneration)	브라질/열전병 급서비스회사	직접투자/공동기업매수, 매수가액 약 80억엔
서클k	2012.11.16	소매업	말레이시아/모 파스그룹	자본제휴/합작기업 설립, 출자비율 30%
아지노모토	2012.11.16	배지(培地)	한국/제넥슨	자본제휴/합작기업 「아지노모 토제넥슨」 설립, 자본금 약 25억엔, 출자비율 75%
대화하우스	2012.11.16	임대주택관리	한국/KT그룹회사	자본제휴/합작기업, 「KD리빙」 설립, 자본금 약 7,000만엔

\* 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#### 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(1) 『일본 서비스기업의 성장전략에 관한 검토』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, 11월 10일

\*출처:[http://www.mizuhocbk.co.jp/fin\\_info/industry/sangyou/pdf/mif\\_115.pdf](http://www.mizuhocbk.co.jp/fin_info/industry/sangyou/pdf/mif_115.pdf)

(2) 『기업의 국제화에 의한 일본재생』 일본국회도서관, 11월13일

\*출처:[http://dl.ndl.go.jp/view/download/digidepo\\_3533028\\_po\\_20120103.pdf?contentNo=1](http://dl.ndl.go.jp/view/download/digidepo_3533028_po_20120103.pdf?contentNo=1)

(3) 『무역구조·투자구조로 본 일본경제의 성숙과 장래』 일본국회도서관, 11월 13일

\*출처:[http://dl.ndl.go.jp/view/download/digidepo\\_3533030\\_po\\_20120105.pdf?contentNo=1](http://dl.ndl.go.jp/view/download/digidepo_3533030_po_20120105.pdf?contentNo=1)

(4) 『2012·2013년도 일본경제전망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11월14일

\*출처:[http://www.mizuho-ri.co.jp/publication/research/pdf/forecast/outlook\\_121114.pdf](http://www.mizuho-ri.co.jp/publication/research/pdf/forecast/outlook_121114.pdf)

(5) 『일본의 산업별 명목실효환율과 실질실효환율의 구축과 응용』 경제산업연구소, 11월15일

\*출처:<http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rd/075.html>